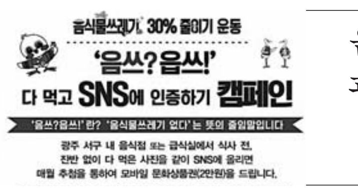
청소년 자살 예방
교육부 포스터 보니
‘다 들어줄 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광주 서구 캠페인 보니
‘음쓰? 읍쓰!’

기괴한 우리말 파괴 심각 ‘씁쓸한 한글날’

정부·지자체가 훼손 주범
학생 급식체 ‘명작→띵작’ 등
SNS선 비속어·은어도 난무

제572돌 한글날을 맞아 한글을 지키고 올바르게 앞장서야 할 정부기관과 자치단체들이 각종 홍보물에 변형·왜곡된 한글을 사용하는 등 한글 훼손의 주범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와 방송 등을 타고 비속어와 은어 사용을 당연시하는 풍토가 조성되면서 올바른 우리말을 사용하면 되레 구시대적인 사람으로 취급을 받는 기현상마저 나타나고 있다.

8일 교육부와 광주 서구 등에 따르면 최근 교육부는 학생자살 예방정책으로 청소년의 생활문화와 발달특성에 맞는 청소년 SNS 상담시스템인 “다 들어줄 개”를 진행하고 있다. 교육부는 만 19세 미만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해당 포스터를 배포했다.

포스터에는 귀여운 개 캐릭터와 함께 상단에 ‘너의 이야기를 “다 줄어줄 개”’라는 제목을 넣은 뒤 하단에도 ‘고민을 날려줄 개!’, ‘눈물을 닦아줄 개!’, ‘친구가 되어줄 개!’ 등의 문구를 배치했다. 맞춤법과 띄어쓰기를 따져보면 ‘줄 개’가 아닌 ‘줄게’가 맞지만, 교육부는 학생들에게 재미를 주기 위해 개 캐릭터를 넣고 마지막 글자 ‘게’를 ‘개’로 바꿨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부 학생들은 혼란스럽다는 반응이다.

초등학생 자녀를 두고 있는 문효찬(51·광주시 서구 쌍촌동)씨는 “아직 한글 맞춤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이 잘못된 맞춤법을 배울까 우려된다”면서 “아무리 흥미를 끌기 위한 것이라도, 다른 기관도 아닌 교육부에서 맞춤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번 프로그램을 담당한 교육부 최종찬 연구사는 “한글 파괴 소리도 주위에서 나왔지만 프로그램 특성상 학생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캐릭터로 개를 선정하고 제목도 그렇게 지었다”면서 “현재 전국적으로 한달 7000여건의 상담이 들어오는 등 관심 좋은 만큼 순기능으로 봐줬으면 한다”고 해명했다.

자치단체에서도 홍보 등을 이유로 부적절한 한글표현을 사용하는 사례가 많다.

광주시 서구의 경우 지난 7월부터 음식물 쓰레기 30% 줄이기인 운동인 ‘음쓰?읍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서구는 SNS 인증을 이용해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정책을 홍보하겠다며 프로그램 이름을 ‘음쓰?읍쓰!’로 지었다고 한다. ‘음쓰’는 음식물 쓰레기의 줄임말이고, ‘읍쓰’는 없다를 재밌게 표현한 것이라는 게 서구청의 설명이다. 이를 바른말로 다시 쓰면 ‘음식물 쓰레기? 없어!’ 정도의 표현이 된다.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SNS상에서는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한글을 파괴한 일명 급식체(급식을 먹는 학생들이 쓰는 말)가 유행하고 있다.

한 예로 ‘명’의 경우 ‘ㅁ’을 ‘ㄸ’으로 으로 바꿔 띵작(명작), 띵곡(명곡)으로 쓰고 있다. ‘명’자를 멀리서 보면 ‘띵’자로 보인다는 게 변형의 이유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다소 선정적인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할 경우 상대방을 배려해 제목 앞에 ‘ㅎㅂ’이라는 초성을 붙이고 있다. ‘ㅎㅂ’은 ‘후방주의’를 뜻한다.

손희하 전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는 “청소년들이 은어 등을 사용하는 것은 과거부터 있었던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면서도 “다만 최근에는 자기 또래의 일부가 아닌 인터넷과 방송 등을 통해 대외적으로 확산하고, 단어를 너무 심각한 수준으로 줄이는 바람에 뜻조차 이해할 수 없는 신조어 등이 나와 한글파괴 등 우려되는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세종대왕 앞에서 한글날 뮤지컬 한글날을 하루 앞둔 8일 서울 광화문 광장 세종대왕상 앞에서 열린 한글날 경축식 리허설에서 한글을 목숨처럼 지켜낸 외솔 최현배의 이야기를 재구성한 뮤지컬 ‘외솔’ 리허설이 진행되고 있다. 527돌 한글날 경축식은 9일 오전 10시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열린다. 경축식의 실외 개최는 한글날이 국경일로 격상된 2006년 이후 12년 만에 처음이다. /연합뉴스

광주·전남 3년간 갑질 횡포 범죄자 770명

광주·전남에서 최근 3년 동안 ‘갑질’ 횡포로 경찰에 검거된 범죄자가 77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현재까지 광주에서 621명이 갑질을 하다 경찰에 붙잡혔으며, 16명이 구속됐다. 같은 기간 전남에서는 149명이 갑질행위로 검거돼 8명이 구속됐다.

광주·전남에서 최근 3년 동안 ‘갑질’ 횡포를 부리다 경찰에 검거된 사람이 770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는 서울이 4381명(29.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도 2879명(19.3%), 부산 2283명(15.3%), 대구 883명(5.9%), 경남 735명(4.9%), 광주 621명(4.2%) 등의 순이었다.

‘갑질’ 유형으로는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한 채용비리 ▲갑질 성범죄 ▲인허가권을 가진 공공기관의 입찰 비리 ▲하도급 계약과 납품 비리 ▲악의적 소비자(블랙컨슈머)의 기업 협박·금품 갈취 ▲사회적 약자 대상 갑질 등이었다.

소 의원은 “갑질행위는 반드시 법적인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면서 “기존 한시적 특별단속 방식을 상시적 단속으로 전환하고,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전남 고령 운전자 농기계 교통사고 최다

전남 농촌이 고령화되면서 61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농기계 교통사고 건수도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9일 국회 농해수위 소속 박주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농기계 교통사고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발생한 농기계 교통사고는 총 2284건이다. 해마다 400여건 이상씩 발생했으며 이로 인한 사망자는 377명, 부상자는 2479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농번기인 5~10월 사이에 전체 교통사고의 67.3%가 발생했으며, 61세 이상 고령운전자들의 농기계 교통사고가 74.4%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전남(466건), 경북(410건), 경남(260건), 충남(243건) 순으로 나타났다.

박주현 의원은 “일손부족 등으로 고령의 농부들이 직접 농기계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조작 미숙 등으로 농기계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면서 “자치단체 등은 농기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농촌 어르신 안전교육 시행과 농기계에 등화장치 및 안전장치 설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목포서 술 취해 응급실 의료진 폭행 40대 구속

목포경찰은 “술에 취해 응급실에서 의료진을 폭행한 혐의(폭행)로 김모(48)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5일 낮 12시 10분께 목포시 모 병원 응급실에서 침상에 눕도록 권유하는 간호사 A(38)씨의 뺨을 한차례 때리고 이를 말리던 의사 B(32)씨의 얼굴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앞서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려 주취 소란으로 경찰에 붙잡혔으며, 이마에 찢어진 상처를 치료하고자 119구급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 관계자는 “응급실 내 폭력을 공무집행방해에 준하는 행위로 간주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기로 한 방침에 따라 구속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목포=김병관 기자 dss6116@

“권리·의무 승계한 법인, 근로관계까지 승계 아냐”

이영철 전 아문화개발원장 판결
기존법인 해산 때까지만 임금 지급

새로 설립된 법인이 기존 법인의 재산과 권리·의무를 이어받으면서도 소속 직원의 근로관계를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면 근로관계까지 이어받은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8일 “아시아문화개발원 초대원장을 지낸 이영철 계원예술대 교수가 아시아문화개발원 후신인 아시아문화원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아시아문화개발원과아시아문화원 사이에 근로관계 승계에 관한 별개의 약정이 존재하지 않고, 아시아문화원 설립근거 법률인 아시아문화도시법에도 근로관계 승계에 관한 규정이 없다”며 “이 교수의 근로계약상 지위가 아시아문화원에 포괄승계됐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음에도 승계를 인정해 해고가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에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종전 법인의 해산 시까지 발생한 근로자의 임금이나 퇴직금 등 채무는 종전 법인의 의무에 해당하므로 근로관계 승계 여부와 관계없이 새로 설립된 법인에 승계된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시아문화개발원 초대원장을 지낸 이 교수는 2013년 5월 원장직을 사임한 후 아시아문화개발원 소속 전시예술감독으로 근무했다. 이후 아시아문화개발원이 2015년 1월 ‘업무 지체’ 등을 이유로 자신을 해고하자, 그해 9월 새로 설립된 아시아문화원을 상대로 해고가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박진표 기자 lucky·연합뉴스

등산로 입구 세워놓은 수백만원대 산악자전거 ‘슬쩍’

쌍나팔

○…등산로 입구에 잠시 세워놓은 수백만원대 수입산 산악자전거(MTB)를 가져간 40대가 경찰서행.

○…8일 광주광산경찰에 따르면 직업이 없던 이모(49)씨는 지난달 5일 오후 5시10분께 광주시 광산구 운수동 어등산 입구 인근에 있는 자전거 보관대에서 A(35)씨 소유의 고급 산악자전거(750만원 상당)를 훔친 뒤 1㎞정도를 타고가 자신의 화물차에 싣고 갔다는 것.

○…이씨는 어등산 등산로에서 입구에서 1㎞ 떨어진 곳에 설치된 CC-TV에 자전거를 싣는 모습과 트럭 번호판이 찍히는 바람에 경찰에 붙잡혔는데,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선처를 호소하고 산악 자전거도 무사히 회수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설명. /김한영 기자 young@

G.O.Auction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경,공매 컨설팅

수익형 추천 물건

★ [건물] 광주 동구 금남로5가(중심상업지역)
토지:912.50㎡(276평) 건물:1,477.64㎡(446.9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48억** 대로변, 전시효과최상

★ [건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토지:1,349㎡(408평) 건물:1,350.03㎡(408.3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61억** 8차선대로변

★ [건물] 광주 북구 일곡동
토지:7,662.4㎡(2,317.8평) 건물:6,864.61㎡(2076.5평)
지상3층 **매매가:105억** 아파트밀집지역,복합사우나건물
(보증금 4억3천, 월수입 2천7백)

★ [건물] 광주 서구 농성동 (준주거지역)
토지:3,104.6㎡(939.1평) 건물:11,543.18㎡(3491.8평)
지상9층 **매매가:100억**
대로변, 지하철역세권, 전시효과 최상, 수익률최상

★ [건물] 광주광역시 광산구 선암동(근린상업지역)
토지:2,485.20㎡(751.77평) 건물:5,802.89㎡(1755.37평)
지상3층 **매매가:85억** 선운지구 상권밀집지역
(보증금 6억, 월수입 3천)

병 원

★ [의료시설] 광주 동구 학동
토지:619.62㎡(187.4평) 건물:1,458.86㎡(441.3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30억** 아파트 밀집지역
대로변, 조대병원인근

★ [의료시설] 광주 동구 대인동
토지:514.40㎡(155.6평) 건물:2,143.08㎡(648.2평)
지하1층 지상5층 **매매가:32억**
약국, 병원, 업무시설 적합

★ [의료시설]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토지:580.40㎡(175.57평) 건물:2,889.86㎡(874.18평)
지하2층 지상6층 **매매가:37억**
상권밀집지역에 위치, 주변 아파트밀집지역

토 지

★ [토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동
토지:3,891㎡(1177평)
매매가:35억3천1백만

★ [토지]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토지:1948㎡(589.27평)
매매가:29억4천5백만
신양파크호텔에서 무등파크호텔가는
도로의 카페거리에 위치
투자가치최상

광주 · 전남 병원건물(요양, 한방)매매 · 임대 다량보유, 사우나건물 전문상담

공인중개사 전민규 062-714-2251, 010-4234-8640